

WTO를 통한 EMF 국제 기술사 제도 실시를 대비한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적 이동성 확보 전략(II):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 및 APEC엔지니어 제도와의 관계

Relation between EMF International Register of Professional Engineers and APEC Engineers



글 / 沈 淳 輔
(Shim, Soon Bo)
토목시공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한국기술사회 국제협력위원장,
APEC 엔지니어 MC부위원장.
E-mail: wqshim@cbucc.chungbuk.ac.kr

註 : 본 원고는 지난 2001년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EMF 회의에 참석한 심순보 국제협력위원장이 참가한 결과를 기고한 것으로 3회에 걸쳐 연재하는 중에 두 번째 원고입니다.

목 차

1. 서 언
2.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
 - 2.1 EMF 국제 등록 기술사의 제정과 유지
 - 2.2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 및 APEC 엔지니어 제도와의 관계
 - 1) APEC 개요
 - 2) APEC의 주요 과제
 - 3) 우리나라와 APEC
 - 4)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 5)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와 다른 전문 기술 자격 (Eur-Ing, NAFTA Engineer & APEC Engineer)과의 관계
3. WA/ABET와 우리나라 공학 교육 Program 및 제도 확립
4.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술사 윤리규범 강화와 EMF 국제 기술사의 CPD 교육 및 독립적 업무 수행 능력 평가(방법)
5.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적 이동성 확보 전략
6. 결 어

2.2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 및 APEC엔지니어 제도와의 관계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는 2.1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APEC엔지니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자체를 이해하여야만 할 것이다.

1) APEC 개요

- 가. 개요
- 명칭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 창설일자 : 1989. 11. 6.
(제1차 각료회의, 호주 캔버라)
 - 회원국 : 총 21개국
 - 창설국(12)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 제3차 APEC 각료회의(91. 11, 서울)시 가입국(3) : 중국, 대만, 홍콩

- 제5차 각료회의(93. 11, 시애틀)시 가입국(2)
: 멕시코, 파푸아뉴기니(PNG)
- 제6차 각료회의(94. 11, 자카르타)시 가입국(1)
: 칠레
- 제7차 각료회의(98. 11, 쿠알라룸푸르)시 가입국
(3) : 러시아, 베트남, 페루
- 옵서버 : 3개 기구
ASEAN 사무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남태평양포럼사무국(SPF)
- 상설 사무국 위치 : 싱가포르(93. 2. 12 설치)
- APEC 총인구('99) : 약 25억명(전세계의 39%)
- 총면적 : 약 4,752만km²(전세계의 27%)
- 총 GDP('99) : 약 17조 9,167억 US\$ (전세계의 59%)
- 총교역량('99) : 약 5조 2,757억 US\$ (전세계의 47%)

나. APEC의 연혁

- 1989. 1. **한·호 정상회담시 '호크' 호주 수상,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보다 공식적인 협의장치를 제의**
- 1989. 11. 6~7 제1차 APEC 각료회의(캔버라) 개최
 - APEC 공식 출범 및 APEC 원칙 채택
 - 한·미·일·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세안 6개국 등 총 12개국 참가
- 1991. 11. 12~14 제3차 APEC 각료회의(서울) 개최
 - Seoul Declaration 채택으로 APEC 목표 설정
 - 중국, 차이나이스 타이베이, 홍콩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 교통, 통신, 관광분야 추가 협력사업 승인
- 1993. 2. 12 APEC 상설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설립
- 1993. 5. 24 김영삼 대통령, PBEC 총회 연설시 아·태 정상회담 개최 지지를 천명
- 1993. 11. 17~20 제5차 APEC 각료회의 및 제1차 APEC 정상회의(시애틀, 블레이크섬) ;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 "Declaration on An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을 채택
 - 한국, 무역·투자 위원회(CTI) 초대 의장국으로 피선
 - 공식명칭 :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 APEC 15개 회원국 중 12개국 정상과 대만, 홍콩의 경제 각료 참석(말레이시아 불참)
 - 경제비전 성명서(APEC Leaders' Economic Vision Statement) 채택
- 1995. 11. 16~17 제7차 각료회의(오사카)

-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행동지침 (Action Agenda) 채택
- APEC 경제인 자문위원회(ABAC) 설립
- 1997. 11. 21~25 제9차 각료회의 및 제5차 - APEC 정상회의(캐나다 밴쿠버)
 -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15개 품목선정
 -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15개 분야 승인
- 1999. 9. 9~13 제11차 각료회의 및 제7차 APEC 정상회의(뉴질랜드 오클랜드)
 - 무역·투자 자유화(TILF)와 원활화 분야에서 더욱 실질적인 진전 이룩
 - 제7차 APEC 정상회의(뉴질랜드 오클랜드)
 - 무역·투자 자유화(TILF) 및 경제·기술협력 (Ecotech)이행 상황 점검
- 2000. 11. 12~16 제12차 각료회의 및 제8차 APEC 정상회의(브루나이, 반다르 스리 베가완)
 - e-IAP을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역내 역·투자자유화 촉진 추진
 - 신경제의 대두에 적응하기 위한 공동노력
 - 신경제를 위한 행동계획 채택

다. APEC의 특성

- (1) **아·태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함.
- (2)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 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완·강화해 나감.
- (3) **발전적 과정(evolutionary process)**
 - APEC은 OECD나 WTO 등과 달리 창설당시 아·태 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하였으며,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도 발전단계(in evolving process)에 있는 협의체라고 할 수 있음.
- (4) **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 APEC은 이러한 역내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consensus에 의거한 의사결정 원칙을 따르고 있음.
- (5) **APEC 중장기 무역·투자 자유화의 원칙**
 - '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에 따라 선진산업국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

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 OAA)이 채택됨.

- 동 행동지침에 따라 1996년부터 협의가 진행되어 1996년 11월 필리핀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자유화 행동(Manila Action Plan for APEC : MAPA)이 채택되었으며, 각국은 매년 개별행동계획(IAP)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자발적 자유화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2) APEC의 주요 과제

가.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TILF :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가) 개요

- APEC은 '89년 11월 창설 이래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촉구하는 등 세계무역 자유화에 기여해 오고 있음.
- '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통한 아·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제시됨과 동시에 무역·투자위원회(CTI)가 창설되는 등 APEC 차원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가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
- '95년의 오사카 행동지침 채택 및 96년 마닐라 실행계획 채택으로 본격적인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가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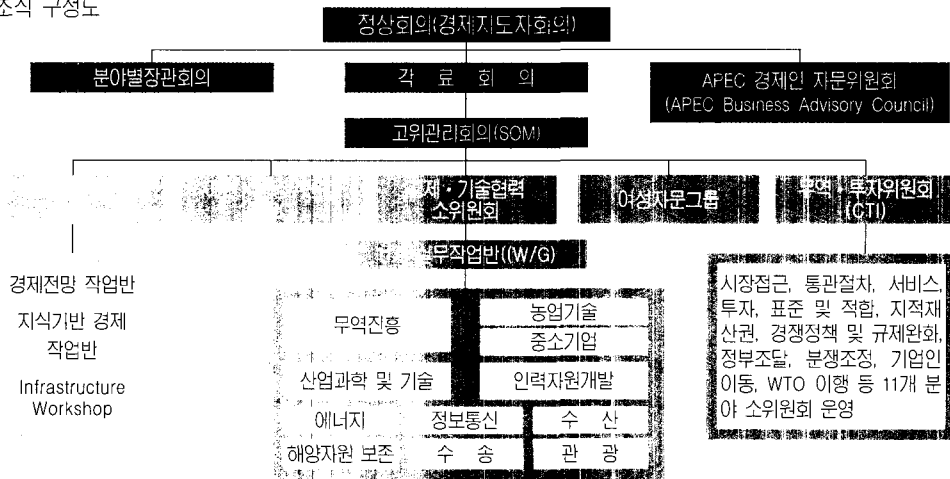
- 현재 무역·투자자유화는 무역자유화를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매년 개선시키고 있는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무역·투자 원활화는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가 작성한 공동실행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0년에는 APEC 역내 IAP 및 CAP 향상 외에, WTO 뉴라운드 조기출범을 위한 APEC 차원의 기여방안 개발, 신경제(New Economy) 확립 등의 사업을 추가함.

나. 개별실행계획(IAP : Individual Action Plan)

(1) 개요

-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아래 14개 분야('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오사카 행동지침(OAA)의 Part I에 명시)에 대해 회원국들은 '96년에 자발적으로 각 분야별 자유화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취합한 것이 마닐라 실행계획(MAPA)의 Volume 2임.
 - 14개 분야 :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 규정,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UR이행
- 각 회원국들은 무역·투자자유화를 위해 각국의 IAP를 충실히 이행하고, 자유화의 정도를 더욱 확

■ APEC조직 구성도



* APEC 엔지니어제도도 APEC의 10개 실무그룹 중 인력개발(HRD)위원회의 APEC Engineer Project로서 제정되었다.

* APEC 엔지니어란 2000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APEC Engineer Manual에서 정의한 바로는 An APEC Engineer is assessed in his/her own jurisdiction as a Professional Engineer eligible for independent practice, who has gained a minimum of seven years experience since graduation, and how spent at least two years in responsible charge of significant engineering work.

- 대시하기 위해 각국의 IAP를 평가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 부문(특히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의 권고도 반영하고 있음.
- 아울러, 회원국간 무역·투자 자유화 정도를 쉽게 비교하고 균등히 진전시킬 수 있도록 투명성(transparency)과 형평성(comparability)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국의 IAP 검토회의 개최가 장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국은 2000년도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99년 IAP를 보완, 개선한 IAP를 제출할 예정이며, 고위관리회의(SOM) 기간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IAP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2) 우리나라 개별실행계획(IAP)의 주요내용(2000)
 - 관세
 - 2000~2010년간 관세분야 투명성 제고 사업 추진
 - APEC의 관세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 매년 <한국의 관세 스케줄> 발간
 - 비관세 조치
 - 2001년 1월까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한 쿼터 할당 폐지로 수입규제 완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
 - 서비스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생산 분야는 2002년까지 분할 매각하여 민영화 방침
 - 2000-2001년간 일반유흥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추진
 - 건설업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0년 중 「건설업기본법」 개정·한국 건설 공제조합에의 출자의무를 일반건설업자는 2000년 7월, 전문건설업자는 2001년 7월부터 폐지
 - 투자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완전 제거하여 외국인 투자 유도 및 촉진
 - 표준 및 적합
 - 상호인증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 2000년까지 APLAC MRA에 가입하고 IAF, PAC, IATC 및 APEC MRA 활동에 적극 참여 예정
 - 2000-2004년간 기존의 표준(Korean Standards)을 모두 검토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선하고, 표준(standards)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2005~2010/2020년간 마련할 예정
 - 통관절차
 - 자동 Cargo Selectivity System을 개선하는 등 Risk Management Technique 이행을 2002년까지 완료
 - 지적재산권
 - WIPO 전자상거래와 Copyright에 관한 지역세미나 개최(2000. 10. 25~27)
 - Trademark Law Treaty 및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atent Law Treaty(PLT)에 관한 Madrid Protocol 가입 추진(2002~2010/2020)
 - 경쟁정책
 -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 제5차 국제 경쟁정책 워크숍 개최(2001년 예정)
 -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사업 지속 추진(2000~2001)
 - 정부조달
 -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실현(2002~2010/2020)
 - 원산지 규정
 - 무역·투자 흐름 자유화에 관련된 원산지 규정의 이행을 검토(2002~2006)
 - 규제완화
 - 행정규제 기본법을 시행하여 규제 일몰제 및 규제 영향분석 제도 도입
 - 기업인 이동
 - '99. 3월부터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정식운영 실시
 - ABTC 적용범위 확대
- 다) 공동실행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
 - (1) 개요
 -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해 OAA의 작성 지침에 따라 무역·투자위원회(CTI)에서 '96년부터 작성·개정하고 있음.
 - IAP가 개별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무역·투자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CAP은 원활한 무역·투자를 위해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음.
 - CAP 작업에는 전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어 통관 절차 개선 등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효과와 표준화 작업을 통한 기업들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000년에는 CAP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절차 투명성 확립, 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통관지역 설립, 자유무역협정 관세/비관세 장벽현황 matrix 개발 등 신분야 포함을 추진
- (2) 각 fora(추진분야)별 2000년 CAP 이행 성과

EMF 국제 등록 기술서 지도

CTI fora 및 추진분야	성 과
MAG (관세/비관세)	○ 비관세조치에 관한 작업성과 점검
GOS(서비스)	○ 서비스에 관한 정책기조(policy framework) 채택
IEG(투자)	○ 제5회 APEC 투자심포지엄(3. 13-14, 상하이)
SCSC (표준 및 적합)	○ 기술적 규제에 관한 모범사례의 원칙과 특성 승인 ○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프로그램 채택
SCCP (통관절차)	○ "서투 없는 무역" 항목을 새로운 CAP으로 추가 ○ WTO 평가협정(WTO Valuation Agreement) 이행 프로그램 완료
IPEG (지적재산권)	○ WTO/TRIPS 협정이행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 ○ 지적재산권 이행에 관한 APEC/IEG Separate Meeting 개최(7. 14, 제주)
CPD (경쟁정책)	○ 경쟁정책에 관한 제4차 APEC TFP Training Program 완료 (3. 14-16, 방콕)
GPEG(정부조달)	○ E-procurement를 위한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방향 수립
MOB (기업인이동)	○ 기업인 여행카드(ATBC) 제도의 확대 ○ 여행관련서류 위조 방지 기술 향상 훈련
EWG(에너지)	○ 에너지 관련 제안사업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에너지 효율평가 표준에 관한 협력을 위한 정책기조 개발
TEL WG (전기통신)	○ 상호 접속에 관한 APEC 원칙 마련 ○ 인터넷 상호접속 비용 청구에 관한 APEC 원칙 마련
TWG(관광)	○ APEC 관광현장 채택

■ 공동실행계획 (CAP) 주요내용

분야	추진 사업	이행시기
관세	○ tariff관련 정보(관세율, 규정, 제도 등) internet 게재	'96. 11
	○ 비관세 장벽 및 이에 영향을 받는 제품 list-up	'98
	○ 관세인하를 통해 무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분야 발굴 및 APEC 각료회의 보고	'99
비관세 조치	○ 비관세조치 database 전산화	'97
	○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무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분야 발굴 및 APEC 각료회의 보고	'99
	○ 수출보증금 감축	중장기
서비스	○ 수출금지, 제한 조치 철폐	중장기
	○ 통신, 교통, 에너지, 관광분야의 투자촉진, 규제통일, 상호인정 등	장/중/단기
	○ APEC 회원국 투자제도 소개집 발간, 전산화	'96
투자	○ 제2차 APEC 민·관 투자 심포지엄 개최	'96. 9
	○ 기술지원(관계자 교육 등) 실시	중/단기
	○ 민간업체,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화 증진	단기
표준 및 적합	○ APEC 투자규범 개발	장기
	○ 건축자재, 금속, plastic 제품 및 의약품에 국제표준과 일치화 작업	2000-2005
	○ 상호인정협정 체결	2000-2005
통관 절차	○ Technical infrastructure 개발 및 시행	'96-2000
	○ 관련 정보 database 구축	2005-2010
	○ IHS Convention 원칙 준수	'96
지적 재산권 (IPR)	○ 통관절차 전산화	'98
	○ 관세관련 법규, 절차 등 정보공개	'98
	○ Kyoto 협약 원칙 준수	'98
경쟁 정책	○ WTO 평가협정 원칙 준수	2000
	○ TRIPS 협정(국경통제분야) 원칙 준수	2000
	○ 관계자(부서) contact point list 작성	'96
표준 및 적합	○ APEC trademark system 개발 사업성 검토	'96
	○ IPR APEC Symposium 개최	'97
	○ 관련규정·절차 간소화·표준화	'96, 8
경쟁 정책	○ 2000 이전 TRIPS 이행	'97
	○ 관련 규정·현황 등 수집	'96
	○ 경쟁정책과 무역과의 관계 분석	중기
경쟁 정책	○ 경쟁정책 APEC 원칙 개발 등	장기

분야	추진 사업	이행시기
정부 조달	○ APEC seminar on GP Agreements 개최	'96. 10
	○ APEC training program of GP officials 개최	'97
	○ APEC 정부조달 규범 개정	중기
규제 완화	○ 규제완화 보고서 매년 발간	'96
	○ 성공사례 교환, 민간분야와의 대화 등	단기/중기
원산지 규정	○ 특허·비특허 원산지규정 현황·제도	단기
	○ WTO/WCO 작업 참여·지원	장기
분쟁 조정	○ 정부간 분쟁: CTI 이용, 자명 mediator 명단 유지	단기
	○ 국내이용 가능한 분쟁조정제도 종합집 발간	'96
기업인 이동	○ 단기상용비자 발급절차·현황 조사 survey 실시 및 요약집 발간	'96
	○ 비자발급절차 표준화·간소화, 단기체류허가제 도입 모색	중장기
UR 이행	○ UR이행 현황 연례보고서 발간	단기/중기
	○ UR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제공	단기 및 계속

나. 경제·기술 협력

(Ecotech :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가) 개관

○ APEC은 협력 초기단계부터 경제·기술협력을 중요성을 부여하여 왔으며,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목적은 회원국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내 경제·사회적 복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

○ APEC에서의 협력은 선·후진국간의 공여자-수혜자간의 협력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협력 관계는 오사카 행동지침(OAA)상의 협력 원칙에 잘 나타나 있음

나) 협력 추진 현황

○ 오사카 행동지침상 13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실무 그룹(Working Group) 및 정책 레벨의 전문가회의에서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96년 수빅 정상회의에서는 13개 분야 중 APEC 회원국에 특히 중요한 아래 6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아·태 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협력 및 개발 강화에 관한 선언"을 채택

- (1) 인적자원 개발, (2)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 (3) 경제인프라 강화, (4) 미래를 위한 기술활용, (5) 환경친화적 지속성장, (6) 중소기업 육성

○ 협력 추진에 있어 (1)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및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호 존중 및 동등의 원칙, (2) 상호 이익 및 지원, (3) 건설적이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 (4) 자발적인 참여와 협의 및 공감대 형성에 의한 합의(콘센서스) 등이 기본 원칙

으로 채택

- 상기 6개 우선분야 추진과 관련, '97년 의장국인 캐나다는 “인프라 강화” 및 “지속성장” 분야를, '98년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인적자원개발” 및 “미래를 위한 기술 활용” 분야를, '99년도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자본시장 육성” 및 “중소기업 개발 및 강화”를 중점 추진
- '96년 이후 경제·기술 협력(Ecotech) 사업의 다양화에 따라 사업간, 분야간 조정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99. 2월 및 5월 경제·기술협력 소위원회에서 Ecotech 사업의 6개 우선분야에 대한 각 분야별 조정국 선정
 - * 캐나다 : 인적자본 개발, 중국: 미래를 위한 기술활용, 인도네시아 : 인프라 강화, 멕시코 : 환경 친화적 지속성장, 호주 : 자본시장 육성, 한국: 중소기업 육성

3) 우리나라와 APEC

가. APEC의 중요성

-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
- 무역·투자의 최대 파트너
 - 총교역의 69.5%, 대한 투자건수의 79.5% 및 투자액의 61.1% 의존 ('99년 기준)
- 우리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및 제도 선진화에 기여
- 한반도 안정에 기여
 - 주변 4강 정상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

나. 역할의 변천

- 초기에는 선도적 역할 수행
 - 호주 등과 창설 주도, 3개 중국문제 해결 등
- 보고를 선언 이후 무역·투자 자유화(TILF) 추진 과정에서 소극적 입장 견지
- 신정부 출범 이후 '98년도 정상회의부터 개혁·개방 의지의 적극 표명으로 주도적 역할
 - 개혁·개방을 통한 위기 극복 주도
 -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에 적극 참여
- 최근에는 빈부격차 및 정보격차 해소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주도적 협력 사업 추진
- 주요 산하기구 의장직 수임
 - 경제위원회, 인력개발실무그룹, 투자전문가그룹, 지식기반작업반, 여성자문그룹 등

다. 연도별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 (1) '93년 : 제1차 정상회의(미국, 시애틀 블레이크 아일랜드)
- APEC의 비전 제시

- 아·태 공동체(Asia-Pacific community) 형성
- UR의 연내 타결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 합의
- 우리측 성과
 - 우리 정상이 최초로 참석한 다자 정상회의
- (2) '94년 : 제2차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보고르)
-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표년도 설정
 - 선진국 : 2010년, 개도국 : 2020년
- 중점 협력분야 선정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 경제·기술협력(Ecotech)
- 우리측 성과
 - 우리나라의 무역·투자 자유화 실천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표
- (3) '95년 : 제3차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 『오사카 행동지침』(OAA) 채택
 - TILF 관련 9개 원칙 선정
 - 포괄성 원칙, 형평성 유지, 무차별 원칙, 투명성 유지, 추가 규제조치 동결, 신축성 부여 등
- 우리측 성과
 - ‘신축성’ (flexibility) 조항 확보, 민감 부문의 단계적 자유화 추진 근거 확보
- (4) '96년 : 제4차 정상회의(필리핀, 수빅)
- 『마닐라 실행계획』(MAPA) 채택
 - 『오사카 행동지침』의 세부 추진계획 마련
 - 개별실행계획(IAP)
 - 공동실행계획(CAP)
 - APEC의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계획 단계 완료
- 『경제협력 및 개발강화에 관한 선언』채택
 - 6대 우선협력분야 선정
 - 인적자본 개발, 자본시장 육성, 경제인프라 강화, 미래를 위한 기술 이용,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중소기업 육성 등
- 우리측 성과
 - 인적자원 개발 계획에의 적극적인 참여 입장 홍보
- (5) '97년 : 제5차 정상회의(캐나다, 밴쿠버)
- 아시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역내 협력방안 협의
 - 역내 금융위기에 IMF를 중심으로 대처
- MAPA의 이행원년으로 구체적 성과 도출
 - TILF 분야 : EVSL 15개 대상분야 선정
 - Ecotech 분야 : 『역내 인프라 개발 협력에 관한 밴쿠버 선언』 채택
- 우리측 성과
 - ‘아·태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을 APEC 시범 사업으로 제의
- (6) '98년 : 제6차 정상회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EMF 국제 등록 기술서 제도

-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
 - 성장지향적 거시경제정책 공동 추진
-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 경주
 - 민간자본의 역내유입 촉진, 회원국 금융체제 강화, 금융분야 구조조정,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확대 G-22 개최 등
- TILF : EVSL 9개 우선분야의 WTO 이관
- Ecotech : '기능개발 실행계획' 및 '21세기 산업 과학기술 협력 의제'의 승인 등
- 우리측 성과
 - APEC 투자박람회 유치(99. 6 서울 개최)
 - 지식기반산업육성, 관광산업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아·정보통신 인프라 사업 확대 등을 제의, 정상들의 지지 획득
- (7) '99년 : 제7차 정상회의(뉴질랜드, 오클랜드)
 - 강하고 개방된 시장을 통한 성장 유지
 - 세계 경제에서의 APEC의 역할 강화
 - 금융안정 포럼 설립 등 국제금융체제 개혁
 - 새로운 WTO 다자간 협상 지지
 - 광범위하고 균형된 의제 채택
 - 번영에의 참여
 - 지식의 효과적인 개발과 적용
 - 소외계층 포용 및 경제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대화 강화
 - 우리측 성과
 - 경제위기 극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방안 제시
 - 2000. 3월 APEC Seoul Forum 개최 제의
 - "개방된 통상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부각, 대외 신인도 제고
 - 우리의 역점 경제정책을 APEC의 협력사업화함으로써 우리의 주도적 위치 부각
 - 2000. 7월 관광장관회의, 2000. 9월 청소년 기술패프 서울개최 제의
- (8) 2000년 : 8차 정상회의 (브루나이, 반다르 스톨리 베가완)
 - 세계화에 대처
 - 부와 지식의 격차해소를 통해 역내 모든 주민들이 세계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의
 - 안정적인 금융환경 제공을 위한 선진국·개도국간 지속적인 공동노력
 - 새로운 기회창출
 - 정보통신기술 혁명이 주는 혜택의 균형적 보급 강조
 - 신경제를 위한 광범위한 행동계획 출범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분야에서의 역내 협력의 필요성 강조
- 다자무역체제 강화
 - WTO뉴라운드의 신속한 출범 필요성 강조
 - 최빈 개도국의 시장접근 등을 포함한 WTO내 신뢰구축 조치들을 환영
- APEC에 대한 인식강화
 - APEC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 확대 환영
 - BizAPEC 웹사이트의 활용 권장
 - 역내 청소년들의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환영
- 우리측 성과
 - 남북한 관계의 진전 및 북한의 APEC 활동 참여에 대한 APEC 회원국 정상들의 지지 의사를 정상회의의 의장이 발표
- 우리나라의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확정
- 우리측 성과
 - 정보격차의 해소
 - 금융위기 방지체제 구축
 -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기조 확산
 - 북한의 APEC 참여에 대한지지 확인
 -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4)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 가. '89년 출범시 호주와 함께 창설을 주도
- 제반 APEC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옴.
- 나. '91년 제3차 각료회의의 서울 개최
 - APEC 헌장적인 '서울선언'을 마련하고, 역내 경제 실체인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을 거중 조정으로 성사시켜 APEC이 지역내 주요한 모든 경제실체를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
- 다. '92년 4차 방콕 각료회의
 - APEC의 상설기구화를 적극 추진, 사무국과 기금 설치에 이룸.
- 라. '93. 11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
 - 역내 무역자유화와 관련 선진 개발도상국으로서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견을 좁혀 공통분모를 찾는데 기여하여 "무역·투자 기본틀에 대한 선언"을 채택시킴.
- 마. 정상회의의 정례개최 주도
 - APEC의 발전을 위해 APEC 정상회담 구상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93. 11 APEC 정상회의가 최초로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바. APEC의 조직 구상 및 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
 - '92. 12 제5차 각료회의의 준비를 위한 시애틀 제1차 APEC SOM(워싱턴)에 사무국 조직에 대한 기본

- 문서를 제출, 사무국 조직의 기본 문서로 채택됨.
- '93년부터 사무국 전문요원으로 우리나라 과장급 공무원(1명) 파견
- '93. 11 제5차 각료회의에 APEC 조직의 향후 비전에 관한 문서를 제출, APEC 조직 재편의 기본문서로 채택(APEC 예산행정위원회, 경제위원회 설립 구상 등 포함)
- 사. '94~'95년간 무역·투자 위원회(CTI) 초대 의장국 역임
- 당시 외무부 선준영 차관보가 초대 위원장에 선임됨.
-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행계획 마련에 주도적 역할 담당
- CTI가 APEC 핵심기구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함.
- 아.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시험운영 선도
- 역내 기업인 이동 원활화 기여 차원에서 '97. 5월 초부터 한국, 필리핀, 호주 등 3국의 기업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ABTC 시험운영 개시
- 벤쿠버 APEC 각료회의에 ABTC 시험운영 결과보고 후 동 제도는 본격 시행중이며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칠레, 홍콩 등이 추가로 참여
- 자. 아·태 정보통신인 인프라 (APII) 구축 추진
- '94년 보고르 정상 회의시 아·태 정보사회 실현을 위해 APEC을 하나로 잇는 국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시 정보 생활화'를 구현한다는 내용의 APII(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사업제안
- '95년 5월 제1차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 회의시 APII 추진을 위한 5대 목표 10대 원칙을 서울 선언으로 채택
- '96년 10월 서울에 「APII 협력센터」를 설립 운영 중
- 차. APEC 투자박람회(Investment Mart) 개최 (정상제안 후속조치)
- '99. 6. 2-5간 서울 개최 APEC 투자박람회 결과
 - 21개 APEC 회원국 포함 총 46개국으로부터 총 5,375명 참가, 총 960여건의 투자상담 실시
 - 한국은 23건 62억불의 구체적 투자상담 진행
 - Cyber Mart에 18개국 1,500여건의 투자유치 기업 정보 수록
 - 의의
 - 아·태지역 지속적 성장의 주요 수단으로서 투자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
 - 회원국 투자환경 비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투자환경 개선 촉진 계기 마련
 - Cyber Mart를 통한 새로운 기법의 상담 기회 마련
- 제2차 APEC 투자박람회는 2001년 중국에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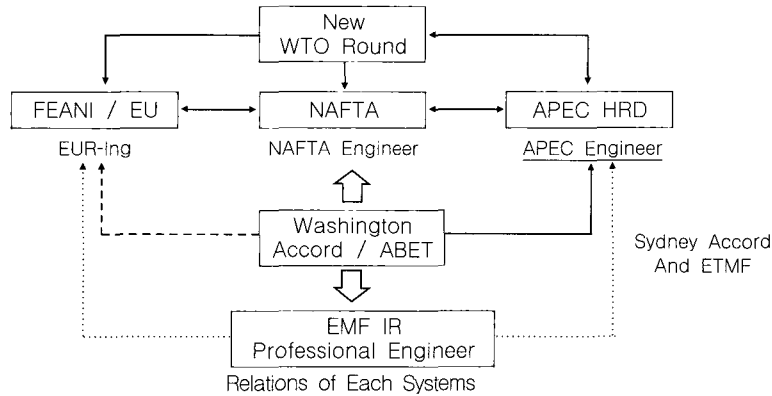
- 최되며 러시아(2002년), 태국(2003년) 등의 순으로 개최예정
- 카. 지식기반산업 활성화 추진
- '98. 11월 APEC 정상회의시 우리 대통령께서 APEC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기반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 정상들의 지지 획득
- '99. 6월 APEC 경제위원회에서 정식사업으로 채택
- '99. 6월 및 2000.6월 우리나라에서 “지식기반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
- '99. 8월 APEC 경제위원회 및 고위관리회의에서 2000년도 작업 계획에 대한 합의도출
 - 호주, 캐나다 등이 공동집필국(lead economy) 참여 결정
- 2000. 9월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APEC 지식기반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정책권고안 채택
 - Knowledge Clearing House 설치
 - Igniting Policy 마련
 - Knowledge Indicator 도입
- 2001년 10월 각료회의에 상기 권고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보고 예정
- 다. 사회안전망 구축
- 2000. 6월 2차 고위관리회의시 태국과 공동으로 사회안전망 제안서 제출
 - APEC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수준 제고(SOM이 사회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금년도 각료/정상회의에 보고 예정)
 - 태국의 사회기반 기금 설립방안, 기존의 사회안전망 분야 외 재난극복 지원분야 추가 등 종합적인 활동 목표 설정
- 2000. 9월 3차 SOM시 구체 사업제안에 대한 승인 획득
 - APEC의 신뢰도 회복 및 공동체 의식 향상도 모를 목적으로 개별 회원국의 특징적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APEC 차원에서 지원하고, APEC 사회안전망 기금을 설립
 - 사업계획 및 집행은 회원국 컨센서스에 의해 추진하며, 기금모금 및 활동참여에 있어서는 회원국의 자발성 존중
- 2001년 사회안전망 관련 협력틀을 논의할 특별작업반(ad hoc task force)을 설치, 우리나라가 의장직을 수임하여 논의를 선도
- 파. 사이버교육 협력 강화
- 2000. 3월 APEC 서울포럼시 우리 대통령은 회원국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인터넷 봉사단 사업을 내용으

EMF 국제 등록 기술시 제도

- 로 하는 "사이버교육 협력 사업" 제안
 - 2000. 5월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시 공식 승인 획득
 - 사이버교육 네트워크 구축
 - 회원국의 정보화교육 관련기관간 연계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청년인터넷 봉사단 사업
 - 역내 정보화 선진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단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
 - 2000. 11월 구체적인 사업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 하. 각종 APEC 회의 개최
- (1) 제1차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
 - '94년 보고르 정상회의시 김영삼 대통령 제안
 - 일시 및 장소 : '95. 5. 28~30, 서울
 - 아·태 정보인프라 구축(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 APII)을 위한 서울 선언문 채택
 - 아·태 지역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협력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확립 및 APEC 내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기반 조성
 - (2) 제1차 테크노마트(Technomart)
 - 역내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시장의 일종인 테크노마트 개최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제5차 각료회의(시애틀, '94. 11)시 제안
 - 제1차 테크노마트 '95. 5. 22~27간 대전에서 개최
 - 주제 : 21세기를 향한 개방적 기술협력의 구현 (첨단기술과 재래기술의 만남)
 - 주요행사 : 전체회의, 기술이전 세미나, 기술 설명회, 전시회 및 상담회
 - 참석자 : 18개 회원국에서 1천여명 참석
 - (3) 제2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
 - 일시/장소 : '96. 11. 11~15, 서울
 - 주제 : Creativity & Mobility : Researchers Across APEC
 - (4) 제2차 APEC 인력개발 장관회의
 - 일시/장소 : '97. 9. 25~26, 서울
 - 주제 : 새로운 도전 하에서의 인력개발
 - (5) 제1차 APEC 청소년 과학 축전
 - 일시/장소 : '98. 8. 14~20, 서울 올림픽공원 등
 - 주제 : Science and Communication
 - 참가자 : 15~18세 사이의 회원국 청소년 500여명
 - (6) 제14차 APEC 교통 실무그룹회의(TPT WG)
 - 일시/장소 : '98. 10. 19~23, 서울
 - (7) APEC 서울포럼
 - 일시/장소 : 2000. 3. 31~4. 1, 서울

- 주제
 - 구조개혁과 자유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 경제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체제 개선
 - 사회·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협력
- 참가인원 : 세계적 석학, 전문가 및 회원국 각료 등 고위관리 포함 800여명 참가
- 대통령 제안사항
 -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Hedge Fund Monitoring Channel)을 국제금융기구에 설치
 - 외환위기 예측모델의 공동 개발
 - APEC Cyber Education Network 구축 및 청년인터넷 봉사단 구성
 - APEC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창설
 - 북한의 APEC 초빙회원자격(guest status) 참여
- (8) 제1차 관광장관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00. 6. 15~16, 서울
 - 주제 : 21세기 아·태 지역 관광의 기회와 도전
 - APEC 관광현장에 관한 서울선언문 채택
 -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이행방안, 이행계획 등 포함
- (9) 제1회 APEC 청소년 기능캠프 개최
 - 일시/장소 : 2000. 9. 22~25, 울산
 - 참가인원 : 각 국별 10여명의 청소년·기능근로자, 교사 등 총 400 여명 참가
 - 참가분야 : 회원국별 전통적이고 특수한 1개 이상 분야
 - 주요행사 : 작품전시/시연, 세미나, 산업시찰, 문화행사(경주), 전국기능경기대회(9. 23~24, 울산) 참관 등
- (10) 제6차 APEC 투자심포지엄 개최
 - 일시/장소 : 2001. 3. 20~22, 제주
 - 주제 : IT시대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새로운 방향 모색(Restructur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 소주제
 - New World Economic Environment
 - Paradigm Shifts in International Business Behavior
 - Special Topics for New FDI Patterns
 -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New FDI patterns

Fora	성명	직책	수입기간
경제위원회(EC)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01. 1 ~ 2002. 12
인력개발 실무그룹(HRD WG)	이정택	한국직능개발연구원 연구실장	2000. 6 ~ 2002. 12
투자전문가 그룹(IEG)	박태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2000. 3 ~ 2002. 3



※ 2001. 1 이후 회의 일정

1. APEC 정상회의
 - 제9차 회의 : 중국 상해, 2001. 10. 20~21
2. APEC 각료회의
 - 제13차 회의 : 중국 상해, 2001. 10. 17~18
3. 분야별 각료회의
 - 재무장관회의 : 중국 소주, 2001. 9. 6~9
 - 통상장관회의 : 중국 상해, 2001. 6. 6~7
 - 중소기업장관회의 : 중국 상해, 2001. 8. 26~31
 - 정보통신장관회의 : 중국, 2002년초
 - 교통장관회의 : 페루 리마, 2001. 10. 3~5
 - 인력개발장관회의 : 일본 쿠마모토, 2001. 9. 29~30
4. 고위관리회의(SOM)
 - 제1차 회의 : 중국 북경, 2001. 2. 11~19
 - 제2차 회의 : 중국 심천, 2001. 5. 26~6.3
 - 제3차 회의 : 중국 대련, 2001. 8. 16~24
5. 기타 주요 회의
 - 전자상거래와 서류 없는 무역에 관한 고위급 심포지엄 : 2001. 2. 9~10
 - 고위급 HRD : 중국 북경, 2001. 5. 14~16
 - 제2차 투자박람회 : 중국 연태, 2001. 6. 9~10

5)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와 다른 전문 기술 자격(Eur-Ing, NAFTA Engineer & APEC Engineer)과의 관계

- ▶ EMF 국제 기술사 제도와 APEC 엔지니어 제도의 관계는 여러 대안이 검토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호 밀접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을 다같이 인식.
- ▶ 2001년 11월 NEW WTO ROUND 협상시,

전문직서비스를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집중 협의 예정 → 2002년 1월 : EMF 국제 기술사 제도 실시 예정

▶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와 (Global Net Use) APEC 엔지니어 등록 제도의 결합 시도 : (ASIA Pacific Region) Possible Merging of EMF and APEC Registers :

2000년 6월 15~16일 양일간에 걸친 캐나다 밴쿠버 EMF 회의에서 영국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안은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와 APEC 엔지니어 제도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안이다.

이는 위 그림에서와 같이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는 전 세계를 통합 적용 되도록 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APEC 엔지니어 권역, 영국 및 아일랜드와 FEANI 지역은 유럽 권역, 남아공 및 관련 국가들은 아프리카 권역, 캐나다와 멕시코 및 북미주는 미주 권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안이다. 이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나 상당히 설득력 있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APEC 엔지니어로서는 EMF 국제 등록 기술사 제도와 APEC 엔지니어 제도를 동시에 결합 체제로서 운영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 The APEC Section	ASIA/Pacific
2) The European Section	UK, Ireland, and FEANI
3) African Section	South Africa and others
4) American Section	Canada, North and South America Mexico-NAFTA

〈다음 호에 계속〉
(원고 접수일 2001. 9. 25)